

일 틈 없이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 직장인들은 얼마나 상사, 동료, 후배들로부터 '사람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을까? 바늘로 찢러도 피 한 방울 안나올 것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일에 미쳐 사는 일벌레도 따뜻한 인간미를 버리는 마음만큼은 똑 같을 것이다. 일터불심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서로의 인간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동료애를 '도반'에 로 승화시키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있다.

그렇다면, 일터불자들은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들과 어떻게 도반의 의의를 다지고 있을까. 또 서로를 도반으로 여기기까지 무슨 공덕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반애를 키우고 있는지 직장불자들에게 들어봤다.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 ② 직장 동료·상사·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즐기고 있습니까?
-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많았다.
-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 ⑦ 계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 마음 열면 일도 신행도 '손발이 척척'

## 교리공부·봉사·업무협조까지 직장 法友 서로서로 '거울' 역할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김종관 총무(38·동곡). 그는 소보원에서 '동국 선생'으로 불린다. 4~50대 국·팀장급 상사 직장불자들이 '계급장'을 떼고 김 총무에게 '불교의 '니드'를 배운다. 자칭 법우회 막내(?)라는 송병준 홍보실장(55·수송), 직장생활 17년차인 부회장 장학민 법무보험팀장(48·보현)과 손성락 기획예산팀장(45·명관)도 모두 동곡 선생을 깎았어 모신다. 나이가 적고 직책이 낮아도 김 총무는 그들의 '도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천주교 신자인 최규학 소보원 원장도 김 총무가 정기적으로 원내 인터넷에 올리는 주유같은 경구를 즐겨 읽으며, '동국 선생'이란 애칭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한다.

총무는 늦깎이 불자 송 실장의 불심을 깊게 했다. 결국 서로가 경책이 되고, 마음 닦는 마음공부에 '신행의 거울'이 돼준 셈이다. 이렇듯 일터에서 도반을 맺는 데에는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한 걸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군산지역회장 성귀자 군산초등학교장(58)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성 교장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배 불자 교사들과 도반애를 나누고 있다. '호랑이 교장선생님'으로 소문난 성 교장이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 파김치가 된 후배 교사들을 생각하면 이내 '말안니·누나'가 된다고 말한다.

### 마음 내려놓기가 최우선 과제

"일터에서 도반을 맺기 위한 마음자세는 하심(下心)에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 내려놓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터도반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자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감이 생겨 서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일터도반간의 믿음은 종교를 뛰어 넘기도 한다. 서울구치소 개신교 모임 신우회원인 박진호 씨(35·보안과)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의 의왕시에 있는 불교계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올해초부터는 구치소 불심회 내 자원봉사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왜 종교가 다른 박 씨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같은 사무실 선배 이남수 보안계장(54·원광)에게서 '따뜻한 사람의 체취'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난해 2002년부터 구치소 불심회장이 이 계장이 하루 근무, 24시간 당직, 1일 비번으로 이어지는 근무형태에도 묵묵히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선·후배 관계지만 도반으로 여기며 직장후배에게도 배우기를 서슴치 않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원들 '도반'으로서 휴게실에서 법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병준, 장학민, 손성락, 김종관 불자) 사진-김철우 기자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박진호(맨 오른쪽) 씨가 의왕시 녹향원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돌보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이 계장님이 올 봄, 녹향원 입구에 함아리를 가져다 놔습니다. 여기에 된장 고추장을 집어서 파와 담아 넣었지요. 낮은 담장 밑에 광이 주인공, 공불련과 감사원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안 국장은 감사원 불자회에서 '공무원 불자 찾는 귀신'으로 통한다. 출장이 잦은 직업특성을 살려 안 국장은 출장기 전에 불자들을 일일이 찾아 불자회 결성을 유

### 직장불자회 결성 '다다익선'

사람이 좋아 직장불자간 도반을 맺게 도움을 주는 일터불자도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안홍부 법무과장(57·도광)이 주인공. 공불련과 감사원 불자회 창립을 주도한 안 국장은 감사원 불자회에서 '공무원 불자 찾는 귀신'으로 통한다. 출장이 잦은 직업특성을 살려 안 국장은 출장기 전에 불자들을 일일이 찾아 불자회 결성을 유



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 국장이 일터도반 맺기에 나선 것은 대학시절 불교학생회에서 쌓은 불심과 졸업 후에도 계속된 지도 경험에서 비롯됐다.

안홍부 과장은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상사, 동료, 후배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라"며 "그들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일터도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과 신행을 모두 잘 하는 직장불자가 되자"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우리불자회는요

### sbs 법우회

서울방송 법우회는 어느 때보다 TV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불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바른 마음으로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적인 생활로 심신이 지친 불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첫 모임을 갖고 법우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서울여의도포교원 현진 스님을 모시고 매월 셋째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MF로 회원들이 명예 퇴직하여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 상 자주 모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때는 명맥만 유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연구회는 체념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 법우회, 문화방송 불교연구회와 증권거래소 불자회, 금융감독원 불자회 등과 연합법회를 시작하면서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2002년부터는 연말이면, 지산



sbs법우회원들이 지난해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린 언론사불자연합회 창립법회에 동참한 모습.

## '법공양지'로 공부... 타 단체와 연합법회도 사찰 순례·복지시설 방문 항상 'ON AIR'

출범 1주년 때는 회원가족과 함께 수계법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기법회를 매월 개최하고 4~5회의 명산 대찰순례법회를 다니며 전국의 서울방송직원들과 함께 법우애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간 사찰만 해도 5대 적멸보궁, 불법승 삼보 사찰 등 내로라하는 명산대찰을 순례했습니다.

참, 방송기관에서 활동 중인 우리 법우회의 신행활동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창립 초기에 불교 신행단체로 결성된 했지만, 직업의 특성상 한곳에 모여 법회를 봉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불교신행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공양지>를 통해 부처님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간 걸여온 길이 순탄한

스님이 고아 50여명을 거둬 키우는 의정부시 통일한국사를 방문해 책, 옷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나눔의 실천도 해왔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 법우회원들에게 지혜 행이 무엇인지라는 그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연구회는 지난 2002년 방송3사 회장이 모여 연합회 결성을 합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현재 연합회원 30여명이 모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연구회는 그동안 소홀했던 지방 서울방송 불자들이 같이 순례법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법한 법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연구회의 목표입니다.

■이태선 총무

### 2000만 불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들 가룽빈가』

종25관

###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룡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개금 / 청동

묘음 법륜장 개금 W 1,089,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W 669,000 → 430,000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주문전화

※이메일로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법당에 가룽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 퍼져서 장엄한 법문을 불자들에게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룽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룽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 기능, 메모리 기능 - 메시지 티핑 기능(티핑 횟수 조절 기능) - 일일기능 (3번 칙동 기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일부: DC24V (3A-5A 10), 마이크 영프 기능

● 사용방법: 리모컨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소비자가: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주)비엔비기업